

# Daily Auto Check

2022. 10. 18 (Tue)



## 자동차/타이어

Analyst 김준성

02.6454-4866

joonsung.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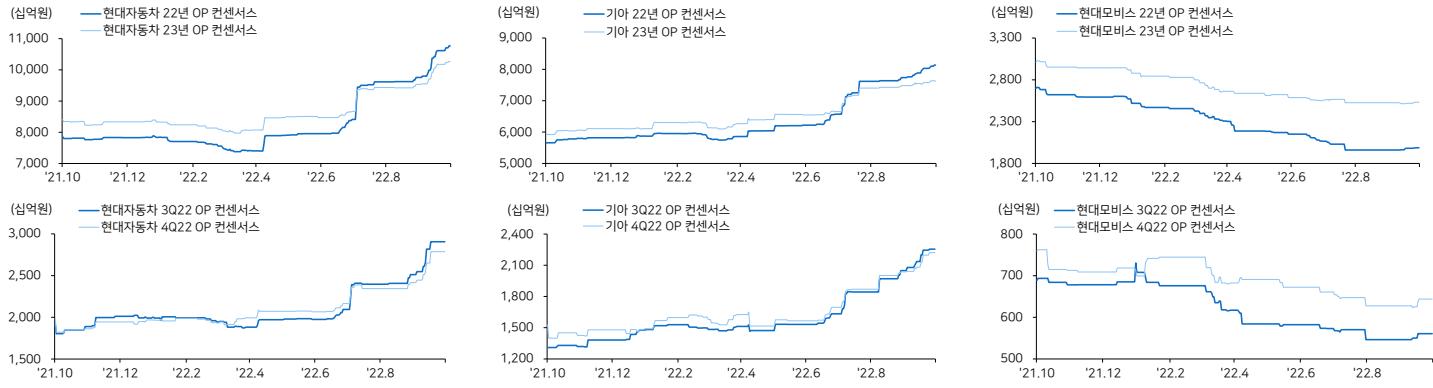
RA 장재혁

02.6454-48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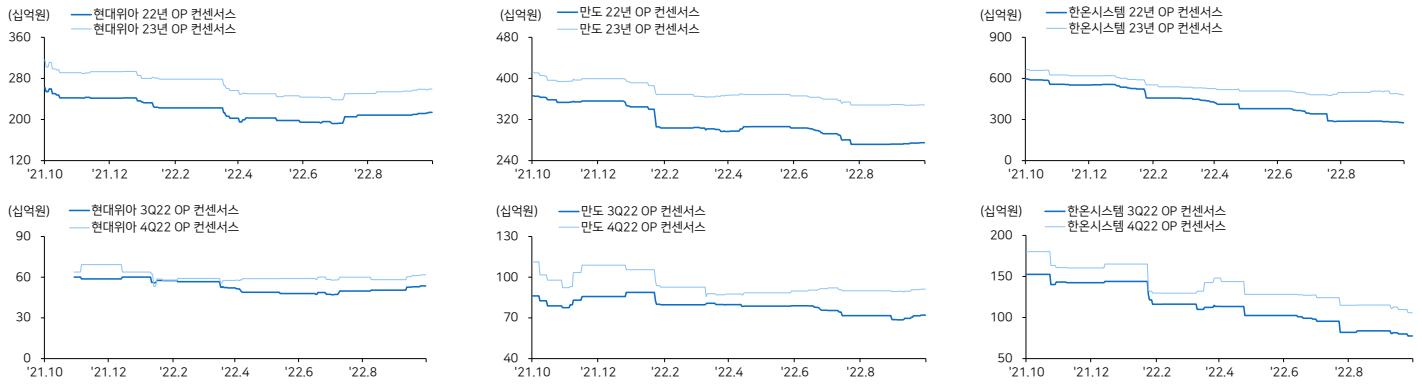
jaehyeok.jang@meritz.co.kr

##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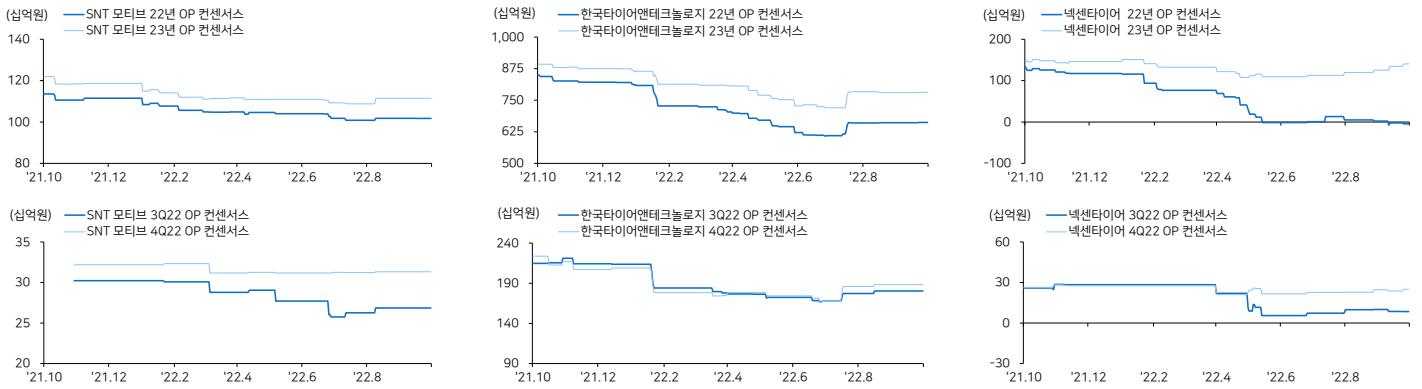
##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 SN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 현대차, 러 공장 유지 여부 검토… 전쟁 장기화에 8, 9월 판매 '0' (동아일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현대자동차그룹이 러시아 공장 유지 여부에 대한 경영진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현지 공장 매각도 주요 시나리오 중 하나인 것으로 전해짐.

<https://bit.ly/3EOFrI1>

## 주한 美대사 'IRA, 장기적으로 도움될 것' (조선일보)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17일 미 의회가 통과시킨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한미 공동의 이익과 목적을 침해할 것이 보지 않는다는" 라며 "한국 기업들도 장기적으로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언급.

<https://bit.ly/3EOFvRn>

## Tesla's hiring rebounds following round of layoffs (electrek)

테슬라의 올해 초 정리하고 소식 이후 채용을 강화, 구인 목록이 6월 이후 약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번주 Tesla의 채용 웹사이트에는 6,900개의 일자리가 등록, 지난 6월 4,400개 수준 대비 상승한 모습.

<https://bit.ly/3g8mqzL>

## Lyft hikes service fee for rides as insurance costs rise (Reuters)

승차공유업체 Lyft는 미국 승객들의 더 높은 보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서비스 요금을 인상한다고 발표. 서비스 요금은 평균 약 60센트 인상되어 평균 송차 비용이 3%, 서비스 요금이 18% 인상됨.

<https://reut.rs/3eEiere>

## 세계 車업계, 호주·유럽 광산으로 물려간다 (조선일보)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배터리 광물 선정 경쟁이 치열해진 데다 IRA 시행으로 중국을 대체할 자원 확보가 사실이 걸린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호주, 유럽 광산업체와 합작사를 만들거나 공급계약에 열을 올리는 중.

<https://bit.ly/3s3uuUu>

## 긴축모드' 아마존, 배달 로봇 사업 접어 (매일경제)

긴축모드에 들어간 아마존이 2019년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던 배달 로봇 '스카우트' 사업을 이미 중단한 것으로 알려짐. 상반기에 순손실을 기록한 아마존은 최근 미국내 물류장과 폐쇄, 건설계획 백지화 등 긴축경영에 들어간 상태.

<https://bit.ly/3jYJLob>

## Intel's Mobileye IPO eyes significantly lower valuation - report (Reuters)

인텔 자율주행 사업부 모빌ай아가 공모 예상 시가총액을 기준의 500억달러에서 200억달러 미만으로 하향, 기준보다 적은 수의 수식을 유동시킬 예정. 화요일부터 예비투자자를 위한 NDR를 시작할 계획.

<https://reut.rs/3TxFBN>

## EU needs to up electric vehicle support to fend off Chinese competition (Reuters)

EU의 기후그룹 연구에 따르면 유럽은 중국 경쟁자로부터 EV 점유율을 잃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자국 EV 인센티브를 더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효율적 규제 없이는 자동차산업 주권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

<https://reut.rs/3ggelch>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지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협력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